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종교

창립 25주년 기념 예배 생명의 전화

미주 전역 한인들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을 하고 있는 '생명의 전화' (원장 박다윗 목사가 7일(토) 들로스선교회(담임목사 황의정, 3119 W 6th St., L.A. CA 90020)에서 창립 25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서 박다윗 목사는 "절망에 빠진 동포들이 주님의 구원의 손을 잡도록 이끌어주고 상처 입은 동포들의 마음을 다잡아 일으켜 주기 위해 25년을 한결같이 전화기 앞에서 가슴 조이며 앉아 있었다." 며 "선한 사리아인의 심정으로 사역에 임하고 있다." 고 말했다. 예배에 참석한 김영환 LA총영사는, "미주 한인 이민의 역사가 120년이다. 그동안 한인 사회에 많은 발전과 성장이 있었지만 그 뒷면에는 많은 그늘도 있었다. 그 그늘을 따뜻한 빛으로 비춰 주신 생명의 전화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고 말했다.

고민이 있는 한인들이라면 누구나 생명의 전화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서부시간 기준)이다.

▶ 생명의 전화: (213) 480-0691

2024 GMMA 전국 선교대회 내년 6월 28~29일, 어바인 베델교회

2024 글로벌 메디컬 미션스 얼라이언스(Global Medical Missions Alliance, 이하 GMMA) 전국 선교대회가 내년 6월 28일(금)~29일(토) 어바인에 있는 베델교회에서 열린다.

GMMA측은 최근 "전국 선교대회에는 많은 워크숍 강사들과 선교 단체들이 참석해 현장에서의 삶의 경험과 선교 기회를 나누게 될 것"이라며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찬양하며 서로 친교를 나누는 축복된 시간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고 전했다. GMMA측은 컨퍼런스 준비를 위해 많은 전문가와 자원봉사자의 동참을 당부했다

GMMA는 2006년 한미의료선교회(Korean-American Missions Health Council, KAMHC)라는 이름으로 창립됐으며 2014년 GMMA로 이름을 변경했다. 창립 이후 2년마다 의료선교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 봉사 문의: conference@gmma7.org



평화를 만드는 사람 (마태복음 5:1-9)

세상에는 누구에게나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마음에 평화를 잃고 불편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 그 일곱 번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 이 세상을 보다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1. 존재의 변화가 먼저라는 말입니다. 존재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거친 성질을 잘 다스리고, 교양을 함양하였다고 사람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나라에 들어갈 수는 더욱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면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과 열린 관계에 있게 됩니다. 성령님과 의 교통이 가능해집니다.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과의 열린 관계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2. 자신의 삶 속에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들인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 속에 평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롭게 된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인정하십시오. 날마다 그 은혜 속에서 강건하십시오.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지혜와 용기가 있습니다.

3. 나 이외의 모든 것과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모든 사람과 평화를 만들며 삽니다. 모든 이들 속에서 평화를 만듭니다.

우리들은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하지, 존경받을 짓을 해야 존경하지, 사랑하려고 해도 미운 짓만 골라가며 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고, 존경하려고 해도 스스로 멸시 받을 짓만 하니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리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랑받을 만한 자만 사랑하면 나는 것이 무엇이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눅 6:32)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눈에는, 우리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예수처럼 보입니다. 그의 인격과 삶이 부족하여도, 그를 볼 수 있는 사랑의 눈이 열리면 그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세상의 일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로 받아들이고, 그 일을 주께 하듯 할 수 있다면 그는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일이 도둑질 하는 일이든지,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아닌 이상 세상 직장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의 일터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일을 하듯 할 수 있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평화 하라."

-최이우 목사-

한남체인 내 코웨이 & 실드라이프

Covid-19 소독제품
여러종류 마스크 판매

정수기 / 비데 / 공기청정기 / 연수기
실드라이프 전기매트, 전기장판

정수기 판매 및 렌탈

714.523.9588 / 714.471.1843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한남체인 내